

# 무주·진안·장수 교육자원 결집

### 전북 동부권 3개 군 통합 진로·진학 박람회 오늘까지 개최... 학생 등 4500여명 방문 작년보다 규모 확대... 진로체험·진학상담·미래교육체험·마을교육체험존 등 운영

전북 동부권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진학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 진로 축제가 막을 올렸다.  
무주·진안·장수교육지원청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무주 반딧불체육관 일원에서 '2026 무주·진안·장수 함께하는 진로·진학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부권 3개 군 교육지원청이 처음으로 교육자원을 통합해 마련한 공동 행사다. 행사 기간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등 450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막식은 무주·진안·장수 학

생의회의장들이 공동 사회를 맡아 학생 주도형 행사로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에는 지난해보다 크게 확대된 107개의 체험 및 상담 부스가 운영돼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을 지원한다.  
진로체험존(A존)에서는 30여 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지역

학교 동아리와 농촌유학 학부모 연합회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진학상담존(B존)에서는 전북대입지원단과 주요 대학이 참여해 1대 1 맞춤형 진학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고등학교들이 학교별 특색과 교육과정을 소개하며 고입 정보를 안내한다.

미래교육체험존(C존)에서는 로보마스터 체험과 AI 머그컵 제작 등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돼 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을교육체험존(D존)에서는 장수 레드푸드 체험과 테라리움 만들기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생태·생활형 프로그램이 운영돼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무주예체능화관에서는 KBS 대표 강사인 윤윤구 강사와 정유빈 강사가 참여하는 진로·진학 특강이 열려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 맞춘 학습 전략과 진학 정보를 전달한다.

이강 무주교육장은 "3개 군이 처음으로 힘을 모아 학생들에게 더 넓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동부권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농산어촌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11일 무주 반딧불체육관 일원에서 열린 '2026 무주·진안·장수 함께하는 진로·진학 박람회' 개막식.

## 민주주의 가치 확산·계승 공로 인정

### 양오봉 전북대 총장, 6·10민주항쟁 기념식서 공로패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0일 오후 7시 전주 풍남문화관에서 열린 '제39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사)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석환)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양 총장은 전북지역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사업들에 꾸준히 헌신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최초의 희생자인 고 이세종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추모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열사는 당시 전북대 농학과 재학생으로, 전북 민주화운동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인물이다.

전북대는 이 열사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새롭게 건립한 학생타운 내에 이세종 열사 기념공관을 조성해 학생들이 민주화 정신을 접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갖췄다.

또한 전북대 옛 정문에서 학생타운으로 이어지는 도로명을 '이세종로'로 변경하고, 올해 개관할 전북대 역사관에 전북지역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정리한 전시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전북대는



고 한승헌 인권 변호사(1934~2022)의 뜻을 기리는 한승헌 도서관을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개관해 그 뜻을 후세에 이어가고 있다.

양 총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6·10민주항쟁은 특정 세대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라며 "39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성찰과 참여, 서로에 대한 존중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대는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미래 세대에 전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내란을 딛고 다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전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행사 이후 도민문화제도 함께 진행됐다.

/김재훈 기자

## 미래 상업인재 역량 겨루기

### 전북상업경진대회 개최 전국대회 진출권 놓고 경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상업계열 특성학교 학생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상업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와 완산여자고등학교에서 제23회 전북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9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 250여 명을 비롯해 지도교사와 집행위원 등 총 330명이 참가해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겨뤘다.

대회는 회계실무, 창업실무, 비즈니스 영어, ERP,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 등 10개 경진 종목과 경제골든벨, 창업동아티어쇼 등 2개 경연 종목으로 운영됐다.

참가 학생들은 학교에서 익힌 전공 지식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 역량을 선보이며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 종목별 입상자에게는 오는 8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16회 전국 상업경진대회'에 전북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전북교육청은 전국대회 참가 학생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와 완산여자고등학교에서 제23회 전북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종목별 맞춤형 심화교육과 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대회가 상업계열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함께 직업교육의 가치와 미래 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지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의 인제교육과장은 "상업경진대회가 전북 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끄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 잠재력을 발휘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청, 경계선지능 유아 지원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경계선지능 유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맞춤형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를 실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창조미래 시청각실에서 공·사립유치원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공·사립유치원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느린 배움을 품는 따뜻한 교실, 함께 성장하는 유아교육'을 주제로 마련됐으며, 경계선지능 유아의 특성과 사회성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전략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의는 유선미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겸임교수가 맡아 △경계선지능 유아의 이해와 발달 특성 △사회성 지원 전략 △학부모 상담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연수에서는 경계선지능 유아의 학습 및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고, 교사의 적절한 상호작용 방법과 학급 내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현장 교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교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사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적용력을 높이는 시간도 마련됐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총 "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 진상규명을"

### "1104명 투표 누락·994표 중복 입력... 선관위의 책임 있는 해명 필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지난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결과 누락 오류와 관련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전주 시 완산구 중화신동 제1투표소 개표 결과와 전산에 반영되지 않고 제3투표소 결과가 중복 입력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해당 오류로 인해 제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투표 결과가 누락되고, 제3투표소의 994표가 중복 입력된 것으로 보도됐다. 단체는 이를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중대한 선거관리 부실로 규정했다.

전북교총은 "유권자의 한 표는 단순히 당락을 가르는 숫자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 단위"라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표 누락과 중복 입력이라는 중대한 오류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는 향후 4년간 전북교육을 이끄는 교육행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라며 "최종 결과가 변화가 없더라도 선거관리 과정의 신뢰가 훼손된 만큼 정확한 경위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록 작성부터 개표 결과 확인 전산 입력, 검수 최종 확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오류 발생 시점과 원인 현장에서 이를 정리하지 못한 이유, 수정과 보고 및 통보 절차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표 입력 오류의 정확한 경위 공개 △오류 발생 단계와 책임 소재 규명 △후보자 및 도민 대상 통보 과정 공개 △전산·검수 시스템 개선 대책 마련 △책임 있는 사과와 후속 조치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총은 최근 전북교육이 교육감

직 인수위원회 인선 논란과 교육계의 소통 문제 등에 이어 이번 개표 오류 논란까지 겹치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유권자의 한 표는 당락 계산의 부속물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라며 "당락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1,104명의 투표 누락 사실이 가볍게 다루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 선거는 전북교육의 정당성을 세우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선거 관리위는 단순 실수라는 말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도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전북교육의 새로운 출발은 절차적 신뢰 회복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직무연수 운영... 교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학교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교원 대상 생태전환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3일과 20일 도내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2026년 생태전환교육 기본과정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사들의 생태전환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프로그램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기후변화의 원리와 대응 방안을 체험적으로 학습하는 기후패스 워크숍 △생태전환교육의 의미와 교육과정 적용 방향 △초·중등학교 현장의 생태전환교육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오상근 기자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26 전북학생의회 제1회 정기회'가 열리는데, 학생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교육 참여 민주주의 실현

### 전북학생의회 2026 제1회 정기회... 정책 제안 4건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전북학생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0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26 전북학생의회 제1회 정기회'를 열고 학생의원들의 자유발언과 정책 안전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학생의원들의 3분 자유발언 3건과 분과위원회를 통해 상정된 정책 제안 4건이 논의됐다.

자유발언에서는 문예빈 학생의원이 학생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자치 연합회 활성화'를 제안했으며, 최은지 학생의원은 원거리 통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건후 학생의원은 교실 붐비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원 보호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정책 안전으로는 △전북 국제교류 프로그램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디딤돌 캠프' 운영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놀음우리' 개선 △학교 내 상담 지원체계 강화 △학생 참여 기반 학생생활규정 개선 등이 논의됐다.

특히 본회의에 상정된 안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담당 부서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검토 의견,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학생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강준 전북학생의장은 "학생의회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통해 전북 학생들과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고문 공인노무사 자문 서비스, 모든 공립학교까지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노무관리 부담을 줄이고 노동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고문 공인노무사 자문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노무관리 어려움 해소와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문 공인노무사 자문 서비스를 모든 공립학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소속기관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지원 범위를 공립학교 전체로 넓혔다. 이번 조치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관계 법령 해석과 노무관리 문제, 노동 분쟁 등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문 신청 절차도 온라인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기존의 유선 문의와 대면 방문 방식에서 벗어나 전북교육청 누리집 내 '고문 공인노무사 자문 코너'를 통해 자문 신청과 답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서비스 개편이 학교 관리자와 행정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노무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상근 기자